(발심품계 - 02호 앞)

발 심 품 계 등 록 서

(신규 □, 재발급 ■)

※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라며, 기재된 사항은 조계종 신도관리 자료로 활용됨을 알려 드립니다.

재적(등록) 사찰	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	조계사 신도번호	2547 0001 1630 0007	
성 명 (한 글)	김 문 자	법 명 (한 글)	보현행	
주민번호	6 1 0 3 1 7 - 2 ■ ■ ■ ■ ■ ■			
주 소	인천광역시 강화군 (읍) 갑룡길35 그랑드빌 아파트 101동 201호			
집 전화번호		문자 서비스 수신	수신동의	
휴대전화	010-6680-4380			
이메일 주소	moonja9@daum.net	이메일수신 동의여부	수신동의	
직업군(해당사항 동그라미 표시)	건설업 / 공무원 / 교원 / 군인 / 금융·증권·보험 / 농축수산업 / 법조인 / 부동산업 / 서비스업 / 숙박·요식업 / 여행·운송업 / 문화·예술·방송 / 연구원/ 유통업/ 의료인/ 정보통신업/ 제조업/ 회사원/ 종교종사자/ 주부/ 학생/ 기타			

삼귀의계 5 계	귀의불(歸依佛) 귀의법(歸依法) 귀의승(歸依僧) 불살생(不殺生) 불투도(不偸盜) 불사음(不邪婬) 불망어(不妄語) 불음주(不飮酒)

나는 부처님의 원력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삼귀의계 및 신도 오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,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며, 신도 권리와 의무 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

상기 본인은 위 사항 및 매년 교무금 납부를 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하며,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로 등록하고자 합니다.

불기 2567 (2023)년 6월 26일

신 청 인 : 김 문 자 보 호 자 :

※보호자란은 18세 미만자만 해당 인 란은 [illegible] 기재

소 속 : 직할교구 백련사

접수 No. 161 2023. 07. 10 포교사단 인천경기지역단

대한불교조계종

불교신문 구독 신청

불교신문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지로서 불교신문을 구독하시면 우리 종단 및 이웃의 불교 소식을 [illegible] 먼저 접해볼 수 있습니다. 신도등록을 하신 분들께서는 특별히 구독료 할인 혜택을 드리[illegible]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사람의 포교입니다. 불교신문을 구독하시겠습니까? □ 예 ■ 아니오

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

성　　명 : 김 문 자
법　　명 : 보 현 행
재적사찰 : 백 련 사

2547 0001 1630 0007

위 사람은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임을 증명함.

불기 2567 년 5 월 3 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